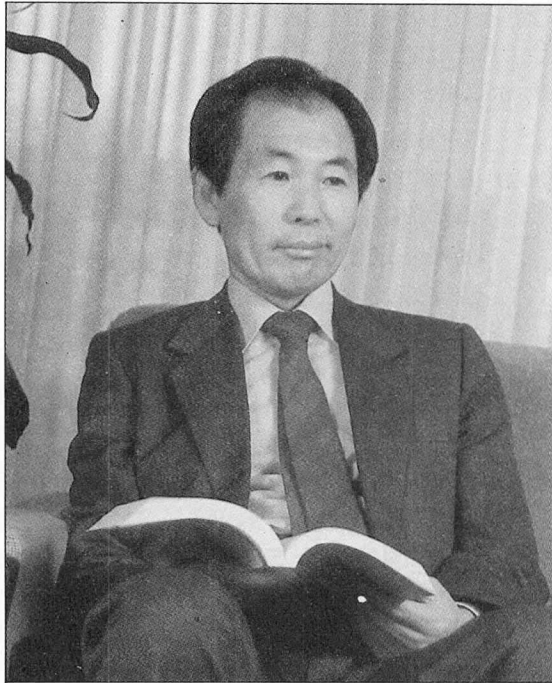


풍부한 사료 집성한 대중적 '연극사학'

「우리시대 演劇運動史」 펴낸 柳敏榮교수



개화기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연극사를 체계화한 이 책은 단순한 사료의 나열 수준을 뛰어넘은 역작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술 등을 통해 선구적 연극인들로부터 얻어낸 당대 연극계의 생생한 현장자료 수집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유민영 교수.

비단 연극뿐 아니라 이른바 '예술'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영화, 무용, 미술, 음악 등은 창작과 이론작업이 병행되는 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앞에는 '작품'으로서의 창작활동이 먼저 다가온다.

그간 이들 분야의 대한 이론작업은 대부분 서구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체계적인 역사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藝人'을 '광대'쯤으로 여겼던 우리네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상투머리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구예술사조가 유입되어 서서히 우리의 전통

문화 한귀통이가 허물어져 가던 개화기에도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유민영교수(53, 단국대 예술대 학장)의 「우리시대 연극운동사」는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통과 외래의 혼합 문화가 발아하던 개화기에서부터 최근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연극사의 흐름을 체계화한 독보적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3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

그간 내놓았던 「한국현대희곡사」 「한국극장사」에 이은, 우리 연극사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있는 '다리놓기' 작업을 완성한 유교수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보다 심도있는 이론작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분야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탓에, 우선 자료수집이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놓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후대학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기본도대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단편적인 서구이론에만 매달리는 젊은 연극도들을 우려하는 그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학자의 몫은 “우리의 목소리가 배어있는 이론과 창작품을 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11번째가 되는 그의 이번 저서는, 이제까지의 것들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던데 비해 연극운동사라는, 그것도 근대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연극사 서술이라는 힘겨운 작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 서연호교수가 지적하듯, “책의 이름은 연극운동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내용은 현대 연극사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싶을 정도로 광범위한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는”이 저술은 전체 6부로 나누어져 있다.

각 시기별로 여명기 연극의 명암, 민족자각과 민중연극, 암흑과 혼돈의 연극, 전쟁과 연극 기반의 붕괴, 연극 재건의 험로, 산업사회와 연극 다양화라는, 그 시기의 특징적 성격을

대변해주는 부제를 붙이고 사진자료를 비롯, 상당한 분량의 색인을 추가한 이 저서는 본문만도 5백여 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물론 자료수집이었지요. 60년대초부터 시작해 30여년에 걸쳐 모은 자료는 그 양도 양이지만 각종 회귀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소득이랄까요. 또한 선구 연극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지나온 삶의 역경과 당시의 연극계 상황을 구술받으면서, 모든 분야의 '선구자'들이 견뎌내야 했던 소외감과 외딴의 인생이 저를 순간순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녹음기 들고 찾아나선 선구연극인들

그들의 증언은 일일이 녹음을 함과 동시에, 당시만 해도 복사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관련 기록물들을 대부분 손으로 베껴써야만 했다고 한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육성테이프들은 그야말로 문화재급에 속하게 되었다. 워낙 긴 자료수집기간이라 그 사이 작고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혜숙씨. 1910년대 신판극을 주도했던 여걸 마호정의 뒤를 이어, 이월화·이채전 등과 함께 '20년대를 풍미했던 그분'을 통해 당시의 연극계 주변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저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이후부터 6·25를 거친 50년대초반에 이르는 연극사의 공백기를 메꾸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진의 「자명고」 공연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좌우의



국내독점 판권계약

告白

하늘땅이 정식으로 판권계약을 맺고 내놓은 必要의 力作!! '告白' 마침내 한국땅에 퍼뜨린다.



고르바초프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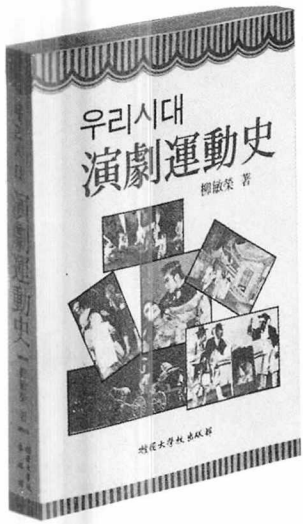
모스크바의 메스, 고르바초프의 論敵 보리스 옐친이 펼쳐보여주는 소련 핵심지도층의 해부도!!

소련과의 국교수교를 앞두고 보리스옐친의 이름이 아직도 낯설다면 당신은 사업가도, 지식인도, 요즘의 신문보는 여성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告白'이라는 빨간글씨가 박힌 책을 즉시 만나보라!
보리스옐친 지음·조영환 박사 감역
값 3,800원

독자의 가슴을 울쳐낼 하늘땅의 5대출판문화사업

●「하늘땅 시선, 소설선」 기획출간 ●문화이벤트 공연사업 ●「하늘땅 광고총서」 출간 ●「하늘땅 꿈나라 별나라문고」 출간 ●세계의 흐름을 읽게하는 「사회과학선서」

하늘땅



연극인들의 해프닝, 지나친 이데올로기 연극에 식상한 대중들을 겨냥해서 성행하던 상업주의 연극의 실상, 연극계의 사회적 참여의 효시가 되었던 '전국연극예술협회'의 활동상, 좌우의 연극의 갈등이 종식된 이후의 북한 연극계, 한국 근대극이 비로소 민족극 정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해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준 국립극장의 출범배경 등에 관한 자료 고증은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교수는 '입체적 再構형식'이라는 기술방식을 사용, "과거의 연극운동사에 대한 단순한 사료의 나열 수준을 뛰어넘은" 학문적 조락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거의 5년만에 탈고를 한 셈인데,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연극을 수용하는 각 시기의 관중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들까지 연극운동사에 포함시킬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역사서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대중'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각주의 본문삽입, 에피소드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평이한 문체를 통해 '학문의 대중적 접근'을 시도하게 하였다.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정통연극뿐 아니라 창극, 악극, 여성극, 마당극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시대의 '연극사학자'

현재 천안과 서울 캠퍼스를 오가며 예술대학장으로서의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중인 유교수는 원래 국문과 소속이다. 희곡전공으로 많은 연극평론과 연극관계 저술을 한 탓에 가끔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오해되기도 한다며 웃는다. 73년 한양대 조교수 시절, 본격적인 연극학수업을 위해 비엔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땅의 연극학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것은 바로 우리 연극사의 체계화 작업이었다.

"제대로 된 탄탄한 역사서 없이 쌓아올리는 부분적인 전문이론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입니다.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연구인구도 많아져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죠"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번은 연극공연을 보기 위해 무대 객석에 앉는다는 그는, 자신이 '연극사학자'로 불리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학자로서의 협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특별한 서재가 따로 없이 온갖 자료와 서적들로 꽂찬 유교수의 집안에서는, 희곡의 좋은 소재가 된다는 불교·도교·토템 등의 종교서적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정소연 기자

뉴스

제2회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5월21일부터 열흘간 出協 세미나룸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현역 일러스트레이터 및 미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국내유일의 픽처북일러스트레이션 전문트레이닝코스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이 5월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일요일 제외) 출판문화회관 세미나룸에서 열린다.

1988년에 이어 두번째가 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김정, 강우현, 류재수 등 국내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 일본의 스키우라 함모 및 스페인태생의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페르난도 피그 로사도 등 외국작가들도 초청돼 일러스트레이션 실기실습을 지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밖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주로 사용되는 아동도서 및 아동문학의 특징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을 예정.

참가인원은 50명으로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신청순으로 선발하며 참가비는 15만원. 이번 워크숍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5월21일(월)
 - 13:00~13:50 참가자 등록
 - 14:00~14:30 개회식
 - 15:00~16:30 그림책의 특성①(김정)
- 5월22일(화)
 - 14:00~15:30 그림책의 특성②(김정)
 - 15:40~17:10 일러스트적 발상법(강우현)
- 5월23일(수)
 - 14:00~15:30 아동도서편집이론(백옥현)
 - 15:40~17:10 일러스트레이션 이론(A그룹-스키우라 함모, B그룹-페르난도 피그 로사도)

- 5월24일(목)
 - 14:00~17:10 일러스트레이션실습①(·)
 - 5월25일(금)
 - 14:00~17:10 일러스트레이션실습②(·)
 - 5월26일(토)
 - 14:00~17:10 일러스트레이션실습③(·)
 - 5월28일(월)
 - 14:00~17:10 아동문학(남미영)
 - 5월29일(화)
 - 14:00~15:30 일러스트와 그림책론(류재수)
 - 15:40~17:40 그림책디자인실습①(강우현)
 - 5월30일(수)
 - 14:00~17:10 그림책디자인실습②(강우현)
 - 5월31일(목)
 - 14:00~17:00 발제강연(윤석금, 한국그림책출판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및 종합토론, 수료식.
- 한편, 이와함께 출판문화협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롯데쇼핑 이벤트홀에서 한국·중국·일본·소련·이탈리아·프랑스 등 14개국 85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참여하는 제2회 국제그림동화화회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늘땅신서 3

인간에 대한 예의

작가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의 소유자-체코의 현직 대통령 하벨의 수필모음!!
"밤 세칸짜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집무가 끝난 후에는 청바지를 입고 젊은이들과 생맥주를 즐겨 기울이는 대통령 하벨-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츨라프 하벨 지음·이상영 옮김
값 3,500원

하늘땅소설선 1

바늘만지

3대째 칠거민, 빈민자가 원명회가 눈물의 땅에 땀을 쏟고 질게 써 내려간 일천육백배의 빈민승가.
"우리 엄마의 단 하나뿐인 가락지는 바늘만지였어. 그것은恨이었고, 또한 힘이었어. 엄마-우린 영세민이 아냐, 그렇지?"

원명희 장편소설
값 4,000원

하늘땅신서 2

빌리브란트

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금세기 독일의 운명이라 일컬어지는 빌리브란트-우랄산맥에서 대서양까지 하나의 유럽을 구상한 그의 '동방정책' 시나리오-그의 정치적 생애가 '유럽 통합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이 회고록을 통해 확인해 본다.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시!!

20세기의 거인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전 유럽통합의 '동방정책'을 주창한 빌리브란트의 대 회고록 완역본



빌리브란트 지음
정경섭 옮김
값 6,800원